



濁流清論

제67호 2022년 1월 10일

발행인: 박 만 규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1
- 내일은 새 아침의 탄생, 코로나 시국은 또 다른 기회	
<u>소통과 담론</u>	4
- '탁류청론'의 위상과 미래	
<u>교수들의 건강칼럼</u>	11
- 여성 노화	
<u>저서 소개란</u>	12
-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장기 불황과 3개의 화살> (박성빈)	
- <하쿠나마타타 아프리카> (이규인)	
<u>소식</u>	15
- 12월 교수회 소식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내일은 새 아침의 탄생,

코로나 시국은 또 다른 기회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규

아주대는 1973년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로 이름을 '아주'(亞洲)로 지으며 개교했다. 영어로는 MIT를 모델로 하여 AIT(Ajou Institute of Technology)로 하였다. 이후 허허벌판에 원천관을 건립하고 항상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교세를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보다 나은 내일'은 실제로 우리 대학의 오랜 슬로건으로도 자리잡았다. 'Dynamic Tomorrow', 즉 '역동적인 내일'이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면 그것은 '발전'을 뜻하고 '발전'이 지속되면 결국 정상에 이르게 되므로 아시아 제일의 대학이라는 개교 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Dynamic Tomorrow'를 만들 수 있을까? '내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tomorrow는 전치사 to(at의 뜻)와 '아침'을 뜻하는 명사 morrow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morrow는 다양한 어형 변화를 거쳐 현대 영어의 morning이 되었다. 즉 tomorrow는 '아침에'

라는 뜻인데, ‘내일’을 왜 ‘아침에’라고 표현했을까? 이는 당시 사람들이 ‘내일’을 ‘(자고 일어나) 아침이 되면 오는 날’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일’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demain*(드맹), 이탈리아어의 *domani*(도마니), 포르투갈어의 *amanhã*(아마냐) 모두 영어의 *tomorrow*처럼 전치사와 ‘아침’을 뜻하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 이루어진 말들이다. 독일어에서 ‘내일’을 가리키는 부사 *morgen*(모르겐)도 본래 ‘아침’을 뜻하는 명사 ‘*der Morgen*’에서 왔고 스페인어의 ‘내일’을 가리키는 부사 *mañana*(마나나)도 ‘아침’을 뜻하는 명사 ‘*la mañana*’에서 왔다.

그런데 이들 로망스어들에서 ‘아침’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모두 라틴어 *matutinum*(마투티눔)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는 ‘어머니’를 뜻하는 *mater*(마테르)에서 온 말이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에게서 탄생했다는 사실로부터, 하루가 탄생하는 시간인 아침을 ‘어머니’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탄생의 시작이듯이 아침은 하루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고, 내일은 ‘새 아침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다.

새 아침의 탄생인 내일을 우리는 어머니로부터의 탄생처럼 소중하고 역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그리하여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탄생시켜야 한다. 이때문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역동적 내일’, 즉 ‘*Dynamic Tomorrow*’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역동적인 내일을 탄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를 위해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역동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오늘을 역동적으로 보내고 있는가? 물론 요즘은 모든 학과가 타 대학의 같은 학과와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고, 학교의 모든 행정 부서가 행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오늘을 뛰고 있다. 입시홍보만 하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교를 휩쓸고 방문하고 있고, 교사초청 설명회와 언론사 설명회, 교육청 설명회, 종합전형 설명회 등 학교를 알리기 위해 일년 365일 내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은 다른 대학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어쩌면 치열한 활동이긴 하지만 ‘일상’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일지도 모른다.

향후 25년내 국내 대학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각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재정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교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학부에서의 학생 감소는 곧바로 대학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연구를 수행할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여 과학기술력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에 젖는다면 큰 오산이다. 이미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들에도 예외없이 강도 높은 '정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편입학 여석을 채울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상을 반복하는 데 머물고 있다면 결코 역동적인 내일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반복되는 일상의 틀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어 내고 있다. 밝아온 임인년 새해에는 이러한 일상의 틀을 깨는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뉴노멀(New Normal)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의 대변혁기는 오히려 세력의 판도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역사가 이를 보여준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기술, 자본을 축적하여 발전해 가던 유럽 사회에 큰 퇴보를 가져다 주었지만, 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이 귀하게 되어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왔고 나아가 농노의 해방을 촉진했으며 이는 결국 봉건제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환경의 대변혁기는 후발주자들에게 기존의 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소니를 삼성전자가 추월하고 따돌린 것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변혁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코로나로 인해 교육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과 체계를 요구하는 지금의 변혁기는 기존에 공고하게 보이던 서열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평소에는 아주대가 예전의 영예를 되찾고 우리나라 대학의 정상권에 서는 것이 몹시도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우리의 비상한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인년 올해는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아주 뉴노멀'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아주 화이팅!

소통과

담론

탁류청론의 위상과 미래

■ 취 지 : 탁류청론 편집위원회 확대 개편을 맞아 신임 편집위원과 함께 탁류청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참석자 : 최영화, 이규인, 박재연, 배상석, 김홍표

■ 진 행 : 최영화(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 시 간 : 2021년 12월 13일 (화) 12:00~13:30

■ 장 소 : 울곡관 263호

내 용

- 01 — 탁류청론의 과거
- 02 — 탁류청론이 당면한 문제
- 03 — 탁류청론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 04 — 탁류청론 발행 간격 및 대상
- 05 — 교수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탁류청론

01. 탁류청론의 역사

최영화 신임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탁류청론의 위상과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탁류청론의 역사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석 2009년에 교수회에 교수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탁류청론이 만들어진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주로 담으셨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홍표 초반에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소통 창구로 생겨났던 탁류청론이 시간이 지나 시의성이 없어졌음에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구독률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탁류청론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류청론의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요.

이규인 저는 주제를 한번 보고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다가거나 흥미로운 기사가 보이면 읽었습니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건강칼럼을 상당히 흥미롭게

읽어왔습니다. 다만 탁류청론의 이름 자체가 변화할 필요에 임용되신 분들도 탁류청론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
 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제목
 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을 맡게 된 이후에
 은 아니잖아요. 약간 고고한 선비 집단 같은 제목인데, 탁
 콘텐츠를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포맷이 좌
 류청론이 시작한 2009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
 답이나 저서 소개였거든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
 려운 거거든요. 탁류청론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해서 애기
 를 하니까 제목 관련하여 의견을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습
 니다.

배상석 처음 조교수로 부임했을 때엔 학내 이슈가 계속
 발생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장님이 부임
 후 이슈가 없어지고 나서 탁류청론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조교수였는데, 승진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
 제가 있어서 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승진 제도를
 엄청 바꾸는 시기였거든요.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라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
 와 관련된 이야기나 흥미 있는 주제가 나올 때 보왔습니
 다.

최영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탁류청론이 의견
 을 말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 줬고 그때의 교수들의 뜻
 을 반영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박재연
 선생님은 언제부터 보셨나요?

박재연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탁류청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요, 신임 교원 소개를 달
 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도 탁류청론이 교
 수님들이 만드시는 매체인지, 학교 소식지인지 스탠스가
 확실하지 않게 다가왔어요. 아마 저 앞뒤로 임용되신 젊
 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세대는 어디에 고정적으로 소속되고 이런 건 익숙하지 않
 아서 단과대나 학과 보다는 연구 주제나 관심에 맞게 느
 슌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좀 라이
 트하게 서로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으로 가야 최근

02. 탁류청론이 당면한 문제

최영화 어찌 보면 평화로운 시기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
 고 앞으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조금 다른 포맷으로 다른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박재연 특히 비대면 시대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들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약하
 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소통
 의 창구가 양적으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독자적
 인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구성원끼리 연
 결 할 수 있는 어떤 매개물이나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류청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
 서만 독자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인 탁류청론이 아주대 교수회의 기관지로서 위상
 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위상을 유지할 건지 아
 니면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아주대 커뮤니티에 원활한 소
 통,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편하게 연대를 통상해 나갈 수
 있는 역할로 확대할 건지에 대한 관점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Z 세대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 학생들
 모두 포함해서 아주대 공동체 공통의 관심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또 다른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주대에는 이런
 소통 창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대학 신문이라는 학생 신
 문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정도인 것 같고 학생
 들도 커뮤니티가 없어요. 학생 뿐 만 아니라 비대면 시대
 가 되면서 교수들도 굉장히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속 학과 교수도 같이 점심을 먹거나 워크숍을 매번 했

었는데 방학 때마다 그런 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들이 서로 얼굴도 보는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표 탁류청론이 최근 시대 변화에 맞춰 온라인으로 포맷을 바꿔서 발행하고 있는데, 탁류청론의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의성 있게 신속하게 발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 탁류청론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 인사이트랑 탁류청론이랑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아주 인사이트는 홍보지처럼 간다면 인사이트와 탁류청론은 무슨 관계인지 정리해야할 것 같아요. 인사이트는 학교에서 발행하고, 탁류청론은 교수신문인데, 그렇다면 학교와 교수는 어떠한 관계인지도 의문인 것 같구요.

박재연 아주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아주대를 알리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탁류청론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소속감 증진을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듯 하구요. 제가 탁류청론에 저서소개를 제안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임용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수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랑은 어떤 주제로 함께 연구하고 싶거나,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보니 적극적으로 연락하기 힘든 구조이고, 내부에서 교수님들께서 연구하는 것을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자세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느낌이더라구요. 각자 교수님들의 연구 주제나 평생 동안 추구해 오신 어떤 관심사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더 녹아 들어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규인 사실 텀을 두고 나오는 소식지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달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거나 유익해야 보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콘텐츠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구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수님 중에 좋은 콘텐츠 가지신 교수님들은 많거든요. 교수회에서 의뢰하면 정보를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봐야합니다. 과거처럼 과 사무실에 갖다 놔가지고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소식지도 볼 게 많고 아침마다 와 있으니까 좋고, 봐도 흥미로운 제목들이라거나 내 연구나 강의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키워딩을 잘해서 전달을 해야 조회수 올라갈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요. 지금 포맷으로는 구독률을 높이기 어렵죠.

최영화 현 교수회의 예산으로 아주대 공동체, 대학 전체 멤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수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박재연 궁금한 것은 교수회의 입장은 여전히 기관지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변신을 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기관지의 성격을 지금 유지하자로 가시는 건가요? 교수회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자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는 없지만 더 큰 변화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강구하거나 예산을 변용하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하더라도 다방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엑셀을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기관지로 시작했지만 기관지에 머무는 것인지 변화를 하는 것인지 교수회에서 확답을 좀 주셔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3. 탁류청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김홍표 어떤 면에서는 의장님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박만규 의장님께서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글을 싣고 하시는데 다음에 의장님이 바뀌어서 딴 분이 되면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럴 때 과연 탁류청론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특정 짓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하면 그건 어렵거든요. 과거에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목표는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요.

이규인 차라리 페이스북과 같은 sns처럼 쌍방향으로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되면 조회수는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의성 있는 사건이 없지만 또 분명히 언젠가는 올 거고, 그 때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령인구감소, 정원 조정 등의 문제가 점점 특별하게 다가올 거거든요. 당장 우리 학과나 수업의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위기 시기 전에는 좀 굉장히 유익하거나 그런 내용을 좀 다루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재연 저는 전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면 다 진짜 진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얘기인데 이제는 접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나 많다보니 결국은 전문가의 큐레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 뽑은 올해의 영화라든지, 어떤 교수님의 책, 어떤 교수님의 사회 이슈 비평,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의 연구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는 등 전문가의 관점으로 보는 걸 누군가는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연구에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호작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코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급진적이고 파격적으로 포맷을 아예 바꾸지 않는 한은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려면 너무 힘들겠죠. 매번 기획을 해야 되니까요.

김홍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걸 정말로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 활자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전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사실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규인 지금 단과대학별로 한 분씩 다 오셨잖아요. 저는 포맷이 너무 좋은데 다만 단과대학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할 수 있는 주제를 각 편집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소식지에 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상시한다면 공과대학에서 하는 콘텐츠를 상시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어떠한가요? 예를 들면 제가 공대에 있을 때는 융합연구회라는 걸 했어요. 보면 다른 단과 대학 교수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 문제가 돼야 관심이 생기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지금 내가 재미있고 그런 이슈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김홍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세미나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세미나 자주 갔어요. 아무 데나 가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본부에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세미나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해서 갈 수 있게 기회를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한두 번인가 하는 것 같더니 그것도 흐지부지 됐어요. 저는 그 때 그분들이 발표하신 것들이 도움이 됐고 그런 걸 모을 수 있으

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미나 등의 내용을 짚막하게 제목이라도 정리해두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규인 저는 이런 좌담회를 하면 원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 원고를 정리하겠죠. 지금 탁류청론의 위상과 미래라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할 거고요. 사실 좌담회 내용이 원고가 된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통의 어떤 관심사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은 약대 오시고 자연대 사회대 등 여러 단과대에서 와서 세미나 혹은 좌담회를 하고 그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싣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게 전 대학에 공유되는 이슈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홍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파란학기제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 또 보면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서 학생들 밑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모아 놓고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 제안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공대 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도 했었나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런 거 갖다가 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요.

박재연 파란학기도 이번 학기에 두 팀을 지도를 했고 두 팀이 다 되게 잘 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동력이 없으니까 한 학기 하고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인큐베이팅을 해서 잘 이어지게 하고 싶은데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김홍표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들 취업하러 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다못해 책자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다 보면 이것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저번에 했던 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만큼 쌓아봤는데 이게 그냥 싹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교수 제안 프로젝트로 가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점이 있어요. 교수 팀원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분이 거기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발전시켜나가는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연속성 같은 거는 교수님들이 관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인 파란학기도 우리 학교의 특화된 포인트인데 저도 파란학기도 해보고, 교수 제안 프로그램도 4학기를 연속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 비전도 넘치죠. 그런데 4학기 하고 나니까 지쳐서 더 이상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교수 제안 하시는 교수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정리돼서 남을 거예요. 아주대학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좋은 프로그램만 잘 발굴해도 적어도 그걸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파란학기 성과 발표하면 끝이에요. 홈페이지에 소식 하나 챙기면 끝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박재연 사실 파란학기도 그렇고 워낙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학점만 주고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 풀 이런 식으로 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저작권도 보호가 되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창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아이디어를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배들이 와서 협력할 후배들을 찾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김홍표 그걸 혁신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혁신원은 매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한 학기 끝나면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예로 회의하다가 과거에 했던 것을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려하면 그 사이에 2년마다 직원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점에서는 교수님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인 교수회가 명석을 까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학기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진취적이예요.

04. 탁류청론 발행 간격 및 대상

박재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지니신 교수님들도 새로 많이 오셨고 오고 계시니까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몇 번 발행하는 건가요?

최영화 한학기에 3번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67호가 발행되면 2학기에 3번째 발행이예요.

이규인 한 학기에 3번이 횟수가 적지만 내용을 알차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두 달에 한 번은 거의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매일 오는 게 많은데 두 달에 한 번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 거든요. 탁류청론을 두 달에 한 번 내더라도 상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이 없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지나가는 거라도 볼 수 있잖아요.

최영화 교수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곳곳에 숨어 있으니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치를 쳐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행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딱 그 상태에 한 시간 정도만 탁류청론을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맷 안에서 찾고 있었는데, 포맷을 새롭게 뒤집어서 여러 가지 교수 시험 프로젝트나, 파란 학기와 같이 풍성하게 군데군데 싹을 틔우는 열매를 모아서 탁류청론에 저장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1년 계획을 짜서 1년치 포맷을 가지고 6회에 맞춰 적절히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초에 2~3시간 hot discussion을 하고, 보물창고처럼 내용을 축적해서 나중에 열어보는 방식으로 공을 들여서 1년 계획을 짜서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리를 통해 탁류청론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은 편집위원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가장 먼저 지속성을 가져야하고, 학내의 구석구석의 아이디어 등을 모아 열어볼 수 있게 해보자라는 의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해마다 변화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규인 탁류청론은 교수들한테만 보낼 건지 아니면 직원이나 학생들한테 오픈해서 아주대 내에서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할 건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주체하고도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교수들끼리만 얘기해서 더 위축된 걸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나 학생들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교수가 하는 거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결성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회 기관지가 너무 폐쇄돼 있어요. 저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수님들의 글도 실고 아카이빙 되고 있

는데 합본호의 경우에도 딱 2부 만들어서 저희끼리 보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유입이 돼야 새로운 피가 돌고 하는 거지 과거의 포맷으로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글 많이 쓰게 하고 조교수님도 오셔서 좌담회도 하고 승진 기준 관리도 얘기해야 관심이 올라가고 진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그 시작은 오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05. 교수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탁류청론

박재연 오히려 교수회의 이름으로 전체 세미나라든지 전체 좌담회를 개최해서 그에 대한 기록으로서 탁류청론이 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유용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맷을 맞춰놓고 거기에 끼우려다보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톤이 달라질 거 같아요. 오히려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수회가 주관해서 시대 흐름과 관련한 공동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예컨대 특정 단과대 교수님께서 20분씩 만이라도 간단하게 연구 이야기나 발제를 해 주시면 그것만 정리해서 잘 담아도 굉장히 알찬 콘텐츠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규인 좌담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좌담회를 통해 한 1년 정도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바탕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한 분이 나와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자기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관심을 갖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를 하면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다보면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넓어질 거예요.

박재연 저는 여교수회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도 전혀 없다보니 아주대학교에서는 여성 교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라는 고민도 살짝 됐어

요. 여성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구성원들끼리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의 부재에 대한 외로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서포트가 될 것 같은데 없어서 더 소외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려면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주제 아니라도 재미있는 주제를 던지고 20분씩 각 단대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저희는 제목을 재밌게 뽑아가지고 콘텐츠로 만들면 매번 마감시기에 원고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인 오늘 같은 자리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준비 안 하고 왔는데도 얘기를 하고 공감대가 생기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활동을 자주 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것을 두 달에 한 번 정리해서 올리는 거죠. 이런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끼리 만나서 얘기 나누게 해드리는 것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 플랫폼 기능을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김홍표 우리끼리만 해도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라도 한 잔 갖다 놓고 땅콩이라도 하나씩 까먹으면서 얘기하면 한 2시간 정도 재밌는 얘기할 것 같아요. 솔직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탁류청론의 미래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여성 노화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장혜진

기온이 떨어지는 한 겨울에도 화끈거리는 열감, 안면홍조, 발한, 가슴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폐경을 생각해봐야 한다. 나이가 들어 난소의 기능이 다해 더 이상 배란과 여성호르몬이 생산되지 않는 폐경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큰 변환기이다. 폐경의 나이는 대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평균 50세 전후로 폐경이 오지만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폐경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며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변화 중 첫 번째는 월경의 변화이다. 규칙적이던 월경이 그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월경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월경을 한 두 달 건너 띄게 되면서 주기가 불규칙해진다. 폐경이 가까워짐에 따라 무배란 주기가 많아지고 월경주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기능성 자궁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3-4개월 만에 월경이 나오면서 갑자기 월경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중년 여성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자궁근종, 선근종, 자궁내막질환이 출혈의 원인일 경우도 있어 감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필수적이다.

전체 여성의 75% 가량이 겪게 되는 안면홍조, 발한은 여성호르몬의 감소에 의해 중추신경계의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체온조절 중추가 자극 받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도 때도 없는 안면홍조 증상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사회 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감을 느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질 점막이 위축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질 건조증, 가려움증, 성교통, 배뇨장애 등이 있다. 평상시와 다르게 전신 피로감, 우울감, 불안감, 감정기복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관절통, 두통, 유방통 등의 비정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장기적인 변화로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증가, 심혈관질환, 고혈압, 인지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평소와 같은 식사량에도 체중은 점차 늘어나기 쉽다. 갱년기에는 비만이 되기 쉬운 조건이 되므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무리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기 보다는 차차 높이는 것이 좋다.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내장지방의 증가,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걷기, 뛰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여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관리하고, 근력 강화 운동 및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요가나 필라테스도 도움이 된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은 1-2년에 한 번씩 유방검사, 자궁초음파검사, 자궁경부암 검사와 함께 골밀도 검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 금연 등의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갱년기 초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발생 확률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있어 본인이 겪고 있는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모든 환자에서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과거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 같은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있었거나, 간부전증이 심한 경우, 현재 담낭 질환이 진행 중인 경우, 혈관색전증이 있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

저서
소개란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장기불황과 3개의 화살> (저자 박성빈,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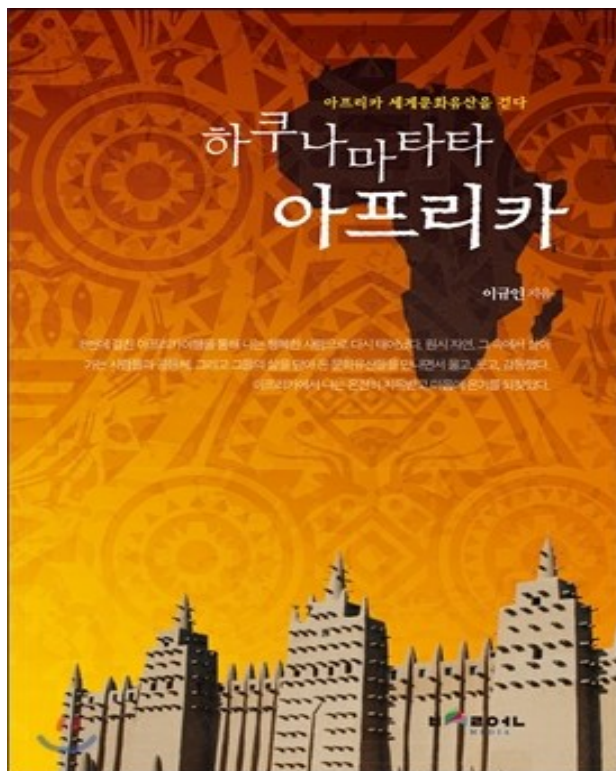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장기불황과 3개의 화살』(박영사, 2019년12월31일)은 제가 연구자가 돼서 처음으로 발간한 단독학술저서이다. 본 글은 일본 경제의 성공기(1945년~거품경제기), 장기 불황기(잃어버린 20년), 아베노믹스기(장기 불황탈출기)에 이르는 일본 경제의 변화를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통화정책(양적완화 등),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하며, 장기불황의 탈출을 목표로 하는 아베 내각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의미한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을 완전히 탈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기업실적 개선이나 고용 지표의 개선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분적인 성과도 존재한다.

본 글은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지만,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관한 분석은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일본 경제나 경제정책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저성장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9년 12월 본 저서 발간 이후 코로나 19 위기의 발생, 미중 갈등의 격화 등 일본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나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기시다 내각은, 성장과 함께,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향후에도 아베노믹스적 정책수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이나 대외전략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안전보장의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변화도 기존 아베 내각 하에서의 경제정책이나 대외 전략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서
소개란

<하쿠나마타타 아프리카> (저자 이규인, 공과대학 건축학과)



이 책은 나의 해외 여행의 절정을 기록한 답사 노트다. 유럽, 아시아, 호주, 중남미, 중동을 거쳐 2010년 모로코 여행을 필두로 사하라사막 아래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를 5년간 6차례 답사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아프리카 여행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말라리아 모기와 강도에 쫓기며 위험을 무릅쓴 여행이지만 그 보상으로 인류의 시원을 체험한다. 위기의 순간에는 지역공동체 안전망이 작동하여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먹거리, 잠자리, 탈거리,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지 못하다. 그러나 수행같은 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한끼 한끼가 소중하고, 이동을 위해

오래된 봉고버스 자리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고, 마굿간이지만 오늘 밤 찬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을 구하면 찬물에 샤워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면서 쓰러져 깊은 잠을 잤다. 건강하고 원시적인 자연에서 욕심없이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아프리카 지구인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며 진정 행복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순간들을 쓰지 않고 못 배겨 용감하게도 이 책을 집필하고 말았다.

건축이 전공이니 주관심사는 아프리카의 세계문화유산이다. 의외로 많다. 그리고 독특하고 개성이 넘친다. 모로코 페스에서 천년 넘게 지속한 인류최대의 보행도시 공동체를 보면서 현대도시의 과연 편리함 이외에 무엇이 발전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된다.

말리의 제네 그랜드 모스크는 세계최대의 흙건축이다. 세계 10대 건축으로 뽑힌 적도 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면 흙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 건축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유는 우기가 끝나면 흙벽 보수 축제를 여는 주민들 때문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마을 건축 보수에 참여하는 모습과 이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보면서 건축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가나의 골드코스트에는 500여km에 걸쳐 노예의 성들이 있다. 아프리카 각지에서 노예를 사냥해 이곳에 손발을 묶은 채 석 달간 가두고 살아남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철문을 통과해 중남미 등지로 팔려나간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본 아름다운 고향의 풍광을 보니 눈물이 흐른다.

온가족이 함께한 동아프리카 여행에서 스와힐리 문화의 거점인 케냐의 라무 섬을 찾아간다. 먼지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버스 천정에 머리를 계속 짚으며 온가족이 맘껏 웃으며 평생 기억될 추억을 쌓는다. 딸과 함께한 남아프리카 여행에서 찾아간 말라위호수는 동트기 전 멋진 초승달이 우리를 맞아준다. 붉은 노을 속에서 딸과 함께 커누를 타고 지는 태양을 쫓아가며 말라위 호수와 하나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폭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빅폴의 물방울 세례를 온 몸으로 맞고, 짐바브웨의 그레이트 짐바브웨 잉카문명에 버금가는 석조 유적을 보면서 남아프리카 제국의 영광을 느낀다.

수백년전 모습으로 박제된 모잠비크섬의 건축들을 보면서 전성기에 멈추는 것이 의미를 새겨보고, 한 섬에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다가스카르로 간다. 그곳에서 천상의 마을을 방문해 로칼럼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만취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도착해 인종차별 분리주의를 이겨낸 만델라와 함께 해방공간을 즐긴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소식

교수회 소식

1. 117차 11월 월례 대의원회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Zoom 접속 방식으로 117차 교수회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박만규 의장, 임석철 부의장, 박구병 총무를 비롯한 대의원 12명과 위임장을 보내온 9명을 포함, 전체 27명의 대의원 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후보자 천거위원회 일정 △위원회(정책연구위원회, 복지위원회, 편집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신임 교원 선발위원회의 권한과 운영방식, △뉴스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2. 118차 12월 월례 대의원회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Zoom 접속 방식으로 118차 교수회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박만규 의장, 임석철 부의장, 박구병 총무를 비롯한 대의원 17명과 위임장을 보내온 6명을 포함, 전체 27명의 대의원 중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후보자 천거위원회 일정 종료와 제17대 총장 선출 결과 △공문(‘신임 교원 초빙과 선발 절차 관련 교수회의 입장’) 발송 △위원회(정책연구위원회, 복지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학과장 간담회 관련 후석 논의와 정책연구의 조속한 개시 제안,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인준,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교수회의 역할, △정기총회(22년 2월), △첨단분야 신설 및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3. 위원회 활동 보고

1) 정책연구위원회

2021년 12월 23일 학과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임 교원 초빙 절차와 학교 방침에 관한 여러 학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2) 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22일 오후 8시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으며, 1학기에 의논했던 복지 개선 제안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 간의 분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4. 교수회 주관 학과장 간담회

2021년 12월 23일 오후 2시 Zoom 접속 방식으로 학과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만규 의장, 임석철 부의장, 박구병 총무, 이재호 정책연구위원장을 비롯한 학과장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임 교원 초빙 절차와 학교 방침에 관한 학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교수회

교수 간의 소통의 부재와 교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회가 발벗고 나서고자 한다. 현재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하며 소통 플랫폼으로서 교수회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수회 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길 바란다.

편집위원회: 최영화, 이규인, 정태선, 박대찬, 이홍재, 박재연, 배상석, 김성환, 전경근, 김홍표, 예영민

